

도서관주간(National Library Week)

◆ 유 래 ◆

1955년 갤럽(George Gallup)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성인의 50%가 공공도서관 반마일 이내의 거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용자는 20%에 불과하며 성인의 61%가 성경을 제외한 다른 책을 읽은 일이 없으며, 여론조사 당시에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단지 17%에 불과하였다.

1954년에 조직된 National Book Committee는 단편적인 노력만으로 대중의 독서경향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느껴 국가적인 캠페인을 벌여 강력한 선전과 활동을 통해 독서운동을 벌이기 위해 「도서관주간」을 설정하였다.

이 도서관주간은 1957년 겨울 ALA의 평의회와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ALA의 후원아래 NBC가 주관하여 1958년 3월 제1회 도서관주간(National Library Week)을 시행함으로써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제1회 도서관주간은 Media를 통한 선전과 지역적 조직에 주력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독서가 개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도서관이 국가의 교육, 사회, 경제,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바를 일반 국민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도서관 사업을 강력한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1964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제1회 도서관주간 행사를 실시한 이래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취지 ◆

도서관주간 설정의 취지는 도서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도서관에만 국한하는 것 보다는 잡지, 팸프렛, 신문 등 모든 인쇄물을 대상으로 하며 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추진하고, 지역사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도서관 이용을 권유하며, 또 권유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와 도서관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그래서 National Library Week Steering Committee (도서관주간 운영위원회)는 독서와 도서관이 교육의 Renaissance에 있어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포착하여 "For a better read, better informed America"라는 Slogan을 계획의 전반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 결 과 ◆

도서관주간을 시행하게 된 결과 작금 도서관 사서들로 구성된 각 주 도서관 협의회는 주간 행사를 위한조직을 구성하여 여기에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을 포함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후원을 증진시켰다.

그리고 각 주에서는 도서관의 시설과 적절한 봉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과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를 느껴 적당한 시기에는 모든 도서관의 시설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그 결과로 1964~65년에 ALA의 회장 Costagna씨가 "National Inventory"를 발표해 도서관주간이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NBC에서는 각 주 도서관 협의회에

- 1)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인 필요에 응할 수 있는 도서관 자원을 검색할 것.
 - 2) 지역적으로 도서관의 독서자료를 검색할 것.
 - 3) 도서관 발전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목적을 설정할 것.
 - 4) 이상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 줄 일반인을 널리 모집할 것.
 - 5) 도서관주간을 도서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법제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것.
- 등을 중용하고 목표로 하여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50만 이상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의 통계를 살펴 본 결과 1956년에 비해 1962년에 이용자 28%, 대출도서 59%, 장서수 68%, 운영비 94% 보급 84% 도서 및 잡지 117% 연간 증가책수 64%가 증가되었다고 한다.

◆ 편집자주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은 미국의 The National Library Week Program에서 발행한 팸프렛 Library Week Progress and Potentials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번에 일곱번째로 갖는 도서관주간을 맞아 이 행사가 처음 시도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찾아 봄으로서 본 주간외 의의가 더 있을 것 같이 생각된다.